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나상균*

<요 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된 사업체 운영의 성공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창업 성공요인이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성공적인 사업체 창업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과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 중 경험특성은 창업성공요인과 관계에 있어서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관리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특성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관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무상태와 점포관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이 창업에 대한 성취욕구 및 창의성이 높을수록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창업성공요인인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 관리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창업성공요인의 정확한 의사결정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창업자 특성인 경험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모두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자 특성인 창업에 대한 경험과 심리적 특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창업성과, 소상공인

I. 서 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규모나 종사자 수를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이는 첫째, 소상공인의 생태계 특성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규모 소상공인 생태계 특성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낮거나 혁신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의 생태계 특성상 자본조달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형태인 가족경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생태계는 창업 및 운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태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통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체는 창업을 하여 성공을 하고, 어떠한 사업체는 실패를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고 많은 변수가 있지만,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소상공인의 특성은 창업의 성공과 창업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 소상공인 창업자는 창업 및 운영과정의 주체이고,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창업자의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있어서 창업자는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창업준비단계 부터 경영단계까지 창업자의 특성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창업의 성공과 성과면에서 또 다른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성공률

보다 오히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성공에 대한 뚜렷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운영에 있어서 창업자 특성, 경험, 자질 및 혁신성 등의 적극성을 갖춘 창업자가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실패한 창업자의 경우, 혁신성이 없고, 창조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성도 부족하여 운영에 관한 계획과 목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창업인 경우,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공과 창업성과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자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 성공과 성과측면에서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된 사업체 운영의 성공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업체 성공요인이 창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나 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체 창업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

일반적으로 창업자란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창업자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모험가이며 혁신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춘래·이남주·이충섭, 2010). 이는 창업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

의할 수 있고, 또한 창업자는 개인적으로 기술과 제품의 아이디어를 소유하여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빈봉식·박정기, 2002; 박광오, 2014). 이와 관련하여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요인으로 심리적 특성은 성취감, 위험감수 의지, 불확실성의 감수 등이 있고, 경험적 특성에는 창업 전의 직업, 가족환경, 교육수준 등에 관한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Begley and Boyd(1987)은 창업자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사업운영에 대한 목표, 사업기회 포착능력, 창조성, 서비스나 제품 기술개발, 위험 선호 및 성취감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추구하는 특성으로 적극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등을 제시하였고, 경험요인으로 전공분야 관련정도 및 경험, 개인적 특성요인과 경험, 역량, 계획 등의 관련 요인이 있다(Gartner, 1989; 주기중·박병화, 2015).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규모, 가족형태의 운영, 자본조달의 한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반창업기업 보다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이다. 소상공인의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배경과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 및 경험은 성별, 연령, 학력, 가정환경, 경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구분한다(조영준·이승희, 2012). 이러한 배경적 특성을 통하여 창업자는 창업과정과 운영에서 업종경험, 창업경험 등을 토대로 창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감소시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비용 및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Allen and Rahman, 1987).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자는 과거의 업종경험과 직장경험을 통해 창업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창업에 대한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창업의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다. 소상공인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자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창업 사업체의 운영 및 성공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장성한·김갑룡, 2001). 또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적극성과 창조성에도 관련이 있어, 이러한 창조성 및 성취욕구는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창업자의 사업체 운영 및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강영욱·하규수, 2012).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소상공인 창업자에 있어서 성취요소 일 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공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심리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적극성이 높은 소상공인 창업자는 스스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여 창업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다(Haswell and Holmes, 1989). 따라서 위험선호 성향의 창업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 적극적이다. 하지만,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제품개발에 있어서 창조성이 없는 경향이 있다(Jang and Kim, 2015).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창업 및 운영과정에서 위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운영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Lefbver, Mason and Lefebvre, 1997).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한 소상공인 창업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창업자는 창업자의 연령, 성격, 경험, 교육정도, 유사 업종의 지식 등의 특성이 있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자는 성취

욕구, 위험감수성 및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의 특성이 있다.

2. 창업성공요인

일반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기술, 경영관리, 자금관리 및 점포관리 등 창업의 성공요소 관리를 통하여 창업 및 운영에 성공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자가 창업과정과 창업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경영이 창업자 성공의 중요한 성공요소 볼 수 있다 (이남주·이충섭, 2010; Bertrand and Schoar, 2003). 세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소로 김상호·박진환(2010)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 지원제도의 활용, 금융지원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한 성공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Baum(1994)은 창업의 성공요소를 기업환경, 금융 지원 상태 및 창업자의 경험 등을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제시를 하였고, Lussier(1996)은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속한 산업에서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창업문화와 창업자가 양성될 수 있는 창업 교육도 성공요소로 제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소상공인 창업에서의 창업 성공은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경제적 환경으로부터의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Politis and Gabrielson, 2009; Coelho and McClure, 2005). 이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활용, 금융지원, 창업교육, 고객관리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박영배·윤창석, 2001). Riggs and Knight(1994)은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의 경우,

경영마인드를 갖춘 창업자가 그렇지 못한 창업자보다 훨씬 높은 창업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패한 창업자들은 자금을 대한 문제, 경험과 기술의 부재를 호소하거나 경영자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 및 사업에 관한 적절한 아이템 등의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 하지만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 성공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해 일치되는 견해로 제시하고 있다. 김미경·이애주(2015)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을 창업자의 성격, 조직의 성격, 성장과 관련된 전략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빈봉식·박정기(2002)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소로 경험, 경영자 의지, 독립심, 창의성 기술, 특허소유, 시장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Watson and Wilson(1998)은 금융조달, 제품개발, 성취동기 등을 규모가 작은 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는 자본조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성취동기, 상권입지, 사업가 특성 요인을 빈봉식·박정기(2002)는 아이템 선정, 상품력, 경영관리 요인을, 박경주(2010)는 점포입지 조건, 창업자의 연구통계적인 특성, 창업과정 요인을 소상공인 창업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Ucbasaran, Westhead, Wright and Flores(2010)은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기간을 창업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창업의 준비기간은 사업구상에서부터 개업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제시하고, 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 준비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Ucbasaran, Shepherd, Lockett and Lyon(2003)은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소는 창업자금의 조달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창업초기 많은 창업자금의 조달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창업의 성공과 성과에 연계가 된다. 이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은 창업 준비 과정뿐만 아니

라 창업후의 운영 및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있는 창업자들은 충분한 경험, 지식, 노하우 및 자본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창업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자는 창업초기부터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자가 가치극대화를 통한 위험대처능력 및 현실도전 자세 등으로 마인드 개선을 통한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의 성공과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반기업과 소상공인만의 창업 및 운영의 성공요인은 첫째, 사업체의 업력과 규모, 성장과정에서의 마케팅 실천력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인하여 점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금의 규모, 타점포와의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혁신성, 점포 인테리어 및 서비스등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

셋째, 창업자금의 조달방법, 시장의 규모, 유능한 종업원, 마케팅 능력, 고객관리 및 자신감 등이 있다. 또한 업종별로 창업성공요인을 분류하면, 도소매 업종은 점포의 위치, 점포의 관리, 자금관리 및 차별화된 마케팅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제조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기술, 경쟁력 있는 제품제조기술, 시장변화의 인지 능력 및 기술자금 지원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창업성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질적 지표가 신뢰성이 있다는 주장과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질적인 지표와 양적인

지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강영욱·하규수, 2012; Frayne and Geringer, 2000).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Zahra and Bogner, 1999).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표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혼합이 필요하다. Chandler and Jansen(1997)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투자수익률, 경쟁적 위치, 마케팅의 혁신 수준, 사업만족도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는 소상공인이 인지하는 창업초기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순이익률, 기대감으로 측정을 하였다. Cooper, Gascon and Woo(1994)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위험감수 성향이 중간정도 경영자가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반면에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 성향의 경영자는 오히려 경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의 창업은 실패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민경세·길병호, 2009). 또한 Cope, Cave and Eccles(2008)은 첨단기술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 욕구가 성공적인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발표하고,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재무적 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목표를 수립하고, 경쟁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일반사업체와 다르게 소상공인은 창업성과로는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순이익률 증가율, 연간 투자수익률 및 입점상권 내 시장점유율 수준으로 측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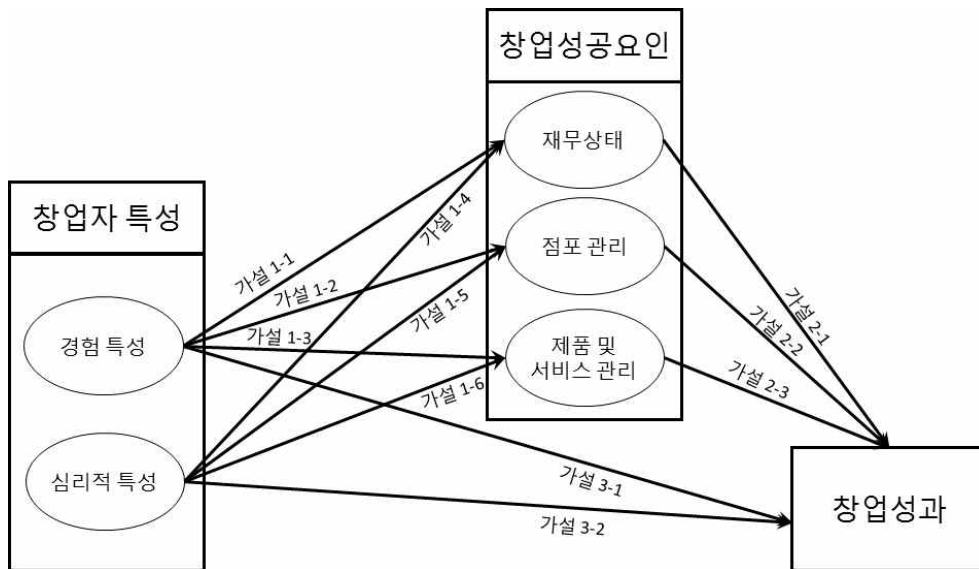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

1.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성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창업성과와의 관계성 검증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단순한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확립하여 창업성과를 통한 매출액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자 특성은 곧 창업성공요인, 창업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2 가설 설정

1.2.1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성공요인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창업자의 풍부한 사업 및 기술적인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창업을 성공으로 리드하여 창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빈봉식·박정기, 2002; Politis and Gabriellsson, 2009). 조영준·이승희(2012)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을 성취동기, 위협감수, 인내성

향 및 자기 권능감 등으로 세분하여 창업성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취동기, 위협감수성향에서 창업성공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artner(1989)은 창업자의 개인적 역량 특성을 의사소통, 경영관리, 대인관계 등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러한 창업자의 역량 특성은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혁신 목적과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창업자의 특성을 살려 창업에 대한 성공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공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경험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경험은 점포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경험은 제품 및 서비스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심리적 특성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심리적 특성은 점포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심리적 특성은 제품 및 서비스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 창업 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기업의 규모가 작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품 및 서비스, 재무상태, 점포관리 및 경영전략요인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Riggs and Knight, 1994). 김미경·이애주(2015)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상품력, 입지력, 서비스력, 점포력 및 관리력을 제시하고, 이러한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이 창업성과인 경영성과나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인 재무상태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인 점포관리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인 제품 및 서비스 관리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3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한다(Zahra and Bogner, 1999; Lefbver, Mason and Lefebvre, 1997).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는 연구에서 경영자 개인적 특성인 학력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고, 장성한·김갑룡(2001)은 경영자의 창업경험, 산업경험 및 경영자가 과거에 경영했던 유사 업종에 대한 경험은 해당 지식과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제품 또는 시장에 친숙함을 제공할 수 있어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영준·이승희(2012)는 창업자의 역량특성 중 의사소통, 위험감수 성향, 경영관리는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경험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인 심리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1 창업자 특성

창업자는 업종경험, 창업경험 및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Lewis, Walls and Dowell, 2014). 또한 성공하는 소상공인 창업자는 창업자의 업종경험을 통해 업종을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평가 할 수 있어, 업종경험은 창업자가 자신의 업종경험을 창업과정과 운영에 적용을 하다면 창업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Begley and Boyd, 1987). 강영욱·하규수(2012)는 소상공인 창업자 경험적 특성은 경영자의 연령, 학력, 설립연도, 산업경험, 직장경험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인 성취특성은 통제력, 제품관리, 성장을 위한 적극성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험감수 성향변수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불확실에 대처하는 정도로 구성하였고, 의사소통 변수는 구두 표현력, 문장 표현력, 분석력, 판단력 등으로 제시하였다(빈봉식·박정기, 2002; 장성한·김갑룡, 2001; Jang and Kim, 2015).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창업후에 사업체를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주체가 창업자의 대분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창업자의 역할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 운영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의 특성을 경험특성(과거의 업종 경험의 성공 및 실패 경험 정도, 과거 관련 업종 종사 경험 및 과거 직장 생활 경험 정도)과 심리적 특성(창업자의 창업 및 운영에 관련한 강한 추진력의 정도, 창

업자의 창업 및 운영의 환경변화 대응능력 정도, 창업자의 창업 및 운영에 관한 위험감수를 수용하는 정도, 창업자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정도 및 창업자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도)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하였다.

2.2 창업성공요인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하는 요인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창업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창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있는 기업과 비교하여 인력, 자금, 인지도, 및 점포의 위치 등 창업성공에 미치는 주요 자원이 부족하여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김상호·박진환, 2010; 김미경·이애주, 2015). Lussier(1996)은 기업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요인으로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영배·윤창식(2001)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성공요소들 중의 하나이며, 창업의 성공요소인 자금부족, 제품관리, 네트워크의 부족은 창업후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및 운영에 실패는 하는 이유는 급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적 원인은 자금관리,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창업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 창업자 몰입, 종업원관리, 시장환경분석능력, 고객관리의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상공인이 창업하고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소를 핵심적인 창업성공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변수는 재무상태(창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 및 운영자금 적정 확보 정도, 창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능력 정도 및 자기 자본 비율의 확보 정도), 점포관리(상권 인구비의 정도, 경쟁 점포수 존재 정도, 위치의 현저성 정도) 및 제품관리 및 서비스(경쟁 사업체와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질의 우수성 정도, 경쟁 제품과 비교한 제품의 다양성 정도, 경쟁 제품 및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 및 빠른 시간 공급 능력 정도)로 측정을 하였다.

2.3 창업성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성장률, 수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등을 포함하는 재무적 성과와 종업원 증가율,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사회기여도, 성장지배력 등을 포함하는 비 재무적 성과로 측정을 하고 있다(김춘화·강병오·윤형보, 2013; Cope, Cave and Eccles, 2008).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쟁우위 전략과 안정된 성과간에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 변수로 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 고객 유지 등을 활용을 하고, 서비스 기업의 성과에는 고객의 충성도, 재구매 및 타인에 대한 추천 등의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강영욱·하규수, 2012; Chandler and Jansen, 1997).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는 창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출액, 순이익, 결과에 대한 기대감 요인으로 측정하였고, 결과의 기대감을 창업분야서 목표매출액 달성율, 창업성공, 창업초기 고객확보, 목표수익 달성 등으로 측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객관적인 성과와 주관적인 성과, 그리고 재무적 성과와 비 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을 한다. 비교적 기업의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신생기업인

경우 재무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난해하며 전통적인 재무적 측정방법이 초기의 창업기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민경세·길병호, 2009).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체의 관리 특성상 객관적 재무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 재무적 자료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목표 대비 매출액 달성정도, 목표 대비 점포의 경쟁력 수준 향상 정도 및 창업시 기대했던 결과에 대한 기대 충족 정도로 측정을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후 경영교육을 받은 신생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을 실증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고 비교적 많은 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포괄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응답자들간의 비교분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설문 조사하기 전에 먼저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을 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창업에 성공한 경영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달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교육을 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247(49.4%)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사용한 표본 수

는 247부로 모집단을 고려할 때 부족하지만, 기존연구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념 신뢰도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 요인, 창업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창업자 직장생활 경험은 3년 미만 37(14.9%)명, 3년-5년 미만 49(19.9%)명, 5년-10년 미만 39(15.7%)명, 10년 이상 78(31.6%)명, 직장생활 경험 무 44(17.9%)명으로 분석되었다. 창업자의 연령대는 20대 150(60.7%)명, 30대 46(18.6%)명, 40대 32(13.0%)명, 50대 이상 19(7.7%)명으로 분석되었다.

창업비용 조달 방법은 자기 자본 29(11.7%)명, 타인자본 43(17.4%)명, 자기 자본과 타인자본 175(70.8%)명으로 분석되었다. 집포운영 애로사항은 판매 140(56.6%)명, 제품개발 및 서비스 37(14.9%)명, 인력수급 17(6.9%)명, 자금관리

30(12.2%)명 기타 23(9.4%)명으로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개별적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요인에 대한 확인분석을 통해 각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관측변수의 적합도 수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인을 서로 연결하고, 변수와 요인간의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분석하였다. 확인요인분석과 연구모형 및 가설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연구에 사용된 요인의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파악한 평가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Chi-square의 p값(0.000)은 유의하게 기각되어야 하지만, $\chi^2/df=1.622$ 으로 나타나 기준 2이하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모든 지수들이 <표 1>에서처럼 절대적합지수: $\chi^2=282.269$, $df=174$, $P=0.000$, $\chi^2/df=1.622$, RMR=0.040, GFI=0.899, AGFI=0.866, PGFI=0.677, 증분적합지수: IFI=0.945, RFI=0.841, CFI=0.944, 간명적합지수: PCFI=0.782, PNFI=0.719, PRATIO=0.82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개념들 간의 상관을 고려한 확인요인분석 모델은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단일요인분석을 통해 먼저 각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전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관측변수 및 전체 적합도 수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심리적 특성요인은 5개 변수로 아이겐 값 3.186, 설명된 분산 15.174%, 경험특성요인은 3개의 변수로 아이겐 값 2.420, 설명된 분산 11.524%, 점포관리요인은 3개 변수로 아이겐 값 2.325, 설명된 분산 11.069%, 제품 및 서비스 관리요인은 4개 변수로 아이겐 값 2.171, 설명된 분산 10.340%, 재무상태요인은 3개 변수로 아이겐 값 1.868, 설명된 분산 8.893%, 창업성과요인은 아이겐 값 1.746, 설명된 분산 8.315%로 분석되어 총 설명된 분산은 65.31%로 나타났다. 특

히, 창업자 특성에서는 창업자의 모호성 수용력, 창업성공요인에서는 창업정보획득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각의 해당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아 설문조사는 하였으나, 최종 확인요인 분석에는 제외를 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는 0.830~0.924로서 모두 0.7 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렴 타당성은 0.655~.795로서 모두 .5 이상이어서 수렴 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확인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변수	표준 적재치	오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지수
경험 특성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	.769	.241	0.849	0.655
	과거 업종 경험	.753	.342		
	과거 직장 경험	.691	.236		
심리적 특성	강한 추진력	.674	.227	0.924	0.709
	환경변화 대응능력	.773	.145		
	위험감수 성향	.751	.235		
	통제의 위치	.671	.192		
재무상태	창업 준비자금 및 운영자금	.892	.189	0.920	0.795
	자금 조달 능력	.723	.168		
	자기 자본 비율	.695	.105		
점포관리	상권 인구비	.858	.112	0.830	0.793
	경쟁 점포수	.765	.163		
	위치의 현저성	.716	.202		
제품 및 서비스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질	.723	.152	0.918	0.753
	제품의 다양성	.821	.261		
	제품의 가격	.831	.127		
	빠른 시간 공급	.719	.249		
창업성과	목표 대비 매출액	.827	.222	0.893	0.763
	점포의 경쟁력 수준 향상	.751	.206		
	결과에 대한 기대 충족	.770	.231		

절대적합지수: $\chi^2=282.269$, $df=174$, $P=0.000$, $\chi^2/df=1.622$, $RMR=0.040$, $GFI=0.899$, $AGFI=0.866$, $PGFI=0.677$, 증분적합지수: $IFI=0.945$, $RFI=0.841$, $CFI=0.944$, 간명적합지수: $PCFI=0.782$, $PNFI=0.719$, $PRATIO=0.829$

3. 가설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서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상의 원자료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하기에 앞서 가설검증의 적합성 검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설검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구조모형의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합지

수: $\chi^2=313.727$, $df=177$, $P=0.000$, $\chi^2/df=1.772$, $RMR=0.042$, $GFI=0.885$, $AGFI=0.856$, $PGFI=0.683$, 증분적합지수: $IFI=0.920$, $RFI=0.826$, $CFI=0.929$, 적합지수: $PCFI=0.783$, $PNFI=0.719$, $PRATIO=0.842$ 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최적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이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가설	채택 여부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	경험특성→재무상태	.350	.191	3.031	.002	<가설 1-1>	채택
	경험특성→점포관리	.382	.013	3.351	.000	<가설 1-2>	채택
	경험특성→제품 및 서비스 관리	.341	.036	2.917	.009	<가설 1-3>	채택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	심리적 특성→재무상태	.138	.101	1.410	.153	<가설 1-4>	기각
	심리적 특성→점포관리	.125	.081	1.302	.171	<가설 1-5>	기각
	심리적 특성→제품 및 서비스 관리	.312	.012	2.351	.011	<가설 1-6>	채택
창업성과	재무상태→창업성과	.525	.148	4.545	.000	<가설 2-1>	채택
	점포관리→창업성과	.604	.119	5.121	.000	<가설 2-2>	채택
	제품 및 서비스관리→창업성과	.645	.112	5.216	.000	<가설 2-3>	채택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	경험특성→창업성과	.371	.020	3.378	.000	<가설 3-1>	채택
	심리적 특성→창업성과	.301	.201	2.012	.017	<가설 3-2>	채택

절대적합지수: $\chi^2=313.727$, $df=177$, $P=0.000$, $\chi^2/df=1.772$, $RMR=0.042$, $GFI=0.885$, $AGFI=0.856$, $PGFI=0.683$, 증분적합지수: $IFI=0.920$, $RFI=0.826$, $CFI=0.929$, 적합지수: $PCFI=0.783$, $PNFI=0.719$, $PRATIO=0.842$

첫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과의 관계이다. 창업자 특성은 경험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창업성공요인은 재무상태, 점포관리 및 제품 및 서비스 관리로 구성하여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 특성인 경험특성은 창업성공

요인인 재무상태(표준화 계수=.350, C.R=3.03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경험특성은 점포관리(표준화 계수=.382, C.R=3.35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또한 경험특성은 제품 및 서비스 관리(표준화 계수=.341,

C.R=2.91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심리적 특성은 재무상태(표준화 계수=.138, C.R=1.410)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4>는 기각되었고, 또한 심리적 특성도 점포관리(표준화 계수=.125, C.R=1.302)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특성과 제품 및 서비스관리에는 심리적 특성이 제품 및 서비스 관리(표준화 계수=.312, C.R=2.35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6>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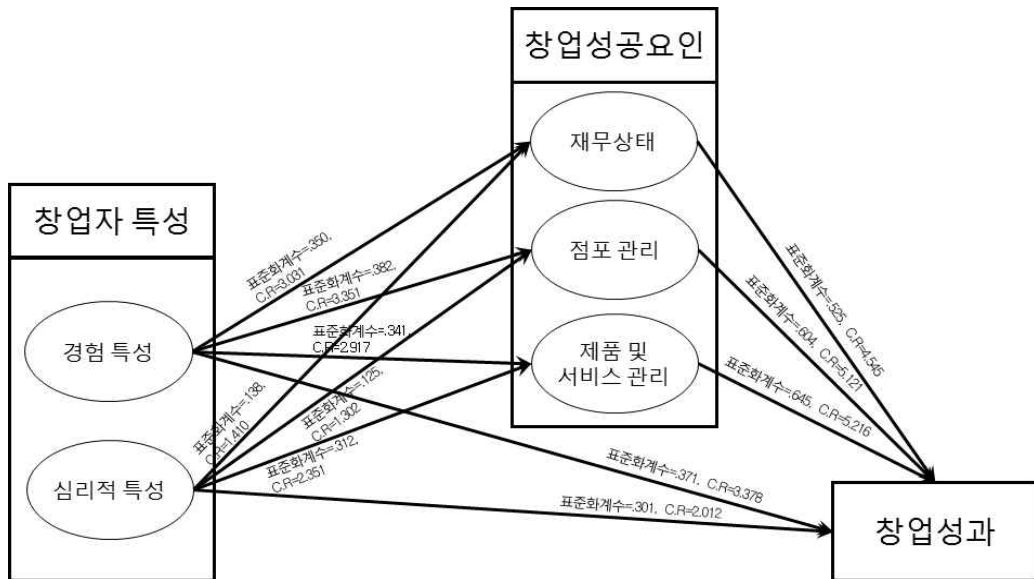
둘째,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창업성공요인중 재무상태는 창업성과(표준화 계수=.525, C.R=4.54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또한 점포관리와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는 점포관리가 창업성과(표준화 계수=.604, C.R=5.12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2>는 채택되었고, 제품 및 서비스 관리에도 창업성과(표준화 계수=.645, C.R=5.21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창업성공요인인 경험특성은 창업성과(표준화 계수=.371, C.R=3.37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1>은 채택되었고, 심리적 특성은 창업성과(표준화 계수=.301, C.R=2.01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여 실

폐하지 않고 성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창업성

과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공요인과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소상공인 특성 중 경험특성은 창업성공요인과 관계에 있어서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관리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특성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관리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무상태와 점포관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에 성공과 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강한 추진력과 창의성 추구 등을 심리적 특성을 소유한 소상공인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제품 및 서비스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창업의 성공요인인 제품 및 서비스 요인이 재무 상태나 점포관리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투자된 재원의 관리와 점포관리도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창업성공요인인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 관리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여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적정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을 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부족한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창업자금의 질과 여유 있는 재원확보가 중요함을 의미

한다. 또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 관리는 고객과의 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소비자의 성향에 초점을 파악하여 점포, 제품 및 서비스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와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창업자 특성인 경험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모두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자 특성에 있어서 창업성공을 위한 경험과 성취 욕구는 창업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창업성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창업자 특성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자는 사업 목표설정 능력 및 자금이나 사업체 운영능력도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창업자 특성과 경험과 성취 욕구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체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분석결과가 지니고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소상공인 창업자 특성이 창업자 성공요인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의 창업자 특성인 경험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창업성공요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경험, 성취욕구 및 창의성이 높을수록 소상공인 창업은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적인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이자 경영자인 자신임을 의미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창업에서 창업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운영에 이르기 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요인과 창업성과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인 재무상태, 점포관리, 제품 및 서비스관리는 창업성과와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창업성공요인의 정확한 의사결정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과와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자 특성이 창업에 대한 경험과 심리적 특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가 창업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 이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 성취감 및 창의성 등은 창업성과로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소상공인 창업자는 성공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성취도가 있을 때 창업성과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자는 모험적이고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과 강한 성취욕구로 창업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및 창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특정방법과 특정장소에서 자료가 조사되어, 일반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 창업성공요인, 창업성과의 인과형 연구모형은 기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과 창업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는 소상공인 창업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영욱·하규수(2012),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0(9), 239-251.
2. 김미경·이애주(2015),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이용한 소규모 외식 창업 성공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8(3), 105-126.
3. 김상호·박진환(2010), “외식 산업 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리학회지*, 16(2), 215-231.
4. 김춘화·강병오·윤형보(2013), “점포창업자의 창업전 창업교육 및 현장 체험이 점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14(3), 1135-1147.
5. 민경세·길병호(2009), “소기업특성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창업 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22(2), 797-816.
6. 박광오(2014),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3(5), 233-247.
7. 박경주(2010), “외식업의 입지결정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창업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1(2), 119-143.
8. 박영배·윤창석(2001),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4(1), 3-34.
9. 박춘래·이남주·이충섭(2010), “소상공인의 창업과정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0(1), 133-155.
10.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 24(3), 135-158.
11. 이남주 · 이충섭(2010),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경영전략과 지원서비스의 기업성과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 저널*, 10(2), 167-188.
 12. 장성한 · 김갑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4(2), 27-47.
 13. 조영준 · 이승희(2012), “창업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창업성과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정책연구*, 10(5), 143-154.
 14. 주기중 · 박병화(2015), “기업가 정신이 기술혁신과 혁신성가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혁신의 매개역할,” *경영과 정보연구*, 34(2), 21-37.
 15. Allen, D. N. and S. Rahman(1987), “Small Business Incubators: A Positive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3(3), 12-23.
 16. Baum, J. R.(1994),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es, Vision, Motivation, and Strategy to Venture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2), 223-236.
 17. Begley, T. M. and D. P. Boyd(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18. Bertrand, M. and A. Schoar(2003), “Managing with Style: The Effect of Managers on Firm Polic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169-1208.
 19. Chandler, G. N. and E. Jansen(1997), “Founder Self-Efficacy and Venture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3(3), 98-102.
 20. Coelho, P. R. and J. E. McClure(2005), “Learning from Failure,”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20(1), 1-20.
 21. Cooper, A. C., F. J. Gascon and C. Y. Woo(1994), “Initial Human and Financial as Predictor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5), 371-395.
 22. Cope, J., F. Cave and S. Eccles(2008), “The Impact and Outcomes of Venture Failure: An Entrepreneurial Learning Perspectiv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8(4), 259-298.
 23. Frayne, C. A. and J. M. Geringer(2000), “Self-Management Training for Improving Job Performance: A Field Experiment Involving Sales Peo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3), 361-372.
 24.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8.
 25. Haswell, S. and S. Holmes(1989), “Estimating the Small Business Failure Rate: A Reappraisa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7(1), 68-74.
 26. Jang, J. and J. Kim(2015), “CEO’s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7(1), 185-215.
 27. Lefbver, L. A., R. Mason and L. Lefebvre(1997), “The Influence Prism in SMEs: The Power CEO’s Perceptions on Technology Policy and its Organizational Impac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2), 215-232.

28. Lewis, B. W., J. Walls and G. Dowell (2014), "Difference in Degrees: CEO Characteristics and Firm Environmental Disclos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5(5), 712-722.
29. Lussier, R. N.(1996), "A Startup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The Retail Industry," *The Mid-Atlantic Journal of Business*, 32(1), 79-92.
30. Politis, D. and J. Gabrielsson(2009),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An Experiential Learn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5(4), 364-383.
31. Riggs, M. L. and P. A. Knight(1994),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5), 755-766.
32. Stuart, R. and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33. Ucbasaran, D. P. Westhead, M. Wright and M. Flores(2010),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41-555.
34. Ucbasaran, D., D. A. Shepherd, A. Lockett and S. J. Lyon(2003), "Life After Business Failure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Business Failur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9(1), 163-202.
35. Watson, K. S. and N. Wilson(1998), "Small Business Start-ups: Success Factors and Support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4(3), 252-265.
36. Zahra, S. A. and W. C. Bogner(1999), "Technology Strategy and Software New Ventures' Performanc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mpetitive Environ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2), 135-173.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mall Business Start-up Founders

Na, Sang-Gyun*

The present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small-scale start-up founder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tart-up businesses. It is also aimed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structural effects of start-up founders' characteristic upon their performances and, by thus, to provide those who prepare for and/or have been operating start-up business with suggestions for stable and successful start-up as well operation.

The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start-up business found that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start-up business founders might influence every factor for their success including the financial conditions as well as management of shops, products and service.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owever,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upon the management of products and service only, but not upon the financial conditions and management of shops, a result implying that the higher desire and creativity small-scale start-up business founders have, the more probable the start-up businesses become successful.

Second, it was learn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s of start-up businesses that such success factors of start-ups as financial conditions as well as management of shops, products and service could exercise impact upon their performances, signifying that the exact decision making of small-scale start-up founders might affect the performances of small-scale start-up businesses.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start-up founders revealed that both empir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founders might have influence upon the performances of start-up businesses,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small-scale start-up founders could achieve higher performances in their start-up when they are highly aware of empir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tart-up as par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Key Words: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Start-up Success Factors, Start-up Performance, Small Business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